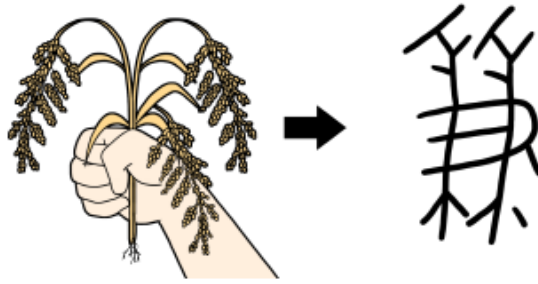


3(2)
-
21

회의문자①



兼

겸할 겸

兼자는 '겸하다'나 '아우르다', '포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兼자는 두 개의 禾(벼 화)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兼자는 손에 여러 개의 벼를 움켜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일을 겸하고 있다 하여 '겸하다'나 '아우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兼자는 모양을 달리한 兼자가 쓰이기도 한다.

兼

금문

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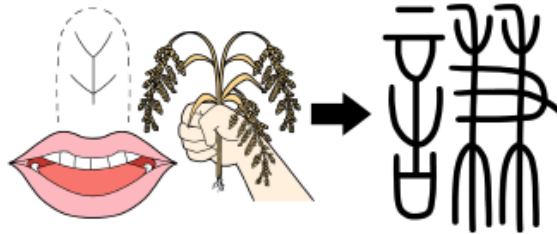
소전

兼

해서

3(2)
-
22

회의문자①



謙

겸손할 겸

謙자는 '겸손하다'나 '겸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謙자는 言(말씀 언)자와 兼(겸할 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兼자는 벼 다발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우르다'나 '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인격과 소양이 두루 갖추어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말을 공손하게 한다. 그래서 謙자는 이렇게 '겸하다'라는 뜻을 가진 兼자와 言자를 결합해 '말에 인격과 소양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겸손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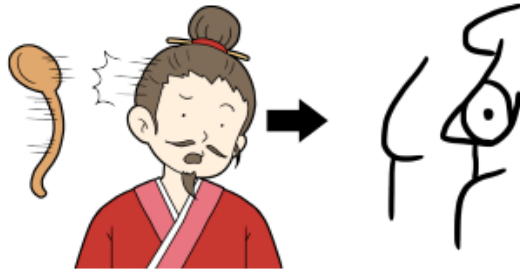
소전

謙

해서

3(2)
-
23

회의문자①



頃

이랑/잠
간 경

頃자는 '잠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頃자는 頁(머리 혈)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頃자는 본래 '기울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금문에 나온 頃자를 보면 마치 수저로 머리를 맞아 고개가 돌아간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었다. 그래서 금문에서의 頃자는 '기울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이러한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졌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잠시'나 '잠깐'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人(사람 인)자를 더한 傾(기울 경)자가 '기울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頃

금문

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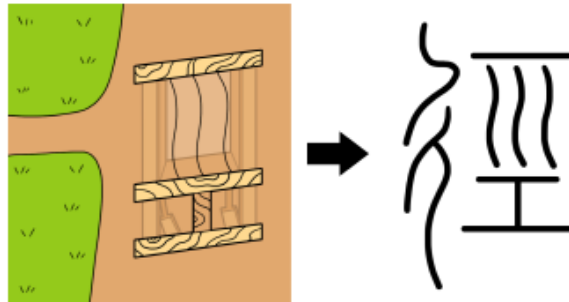
소전

頃

해서

3(2)
-
24

회의문자①



徑

지름길/
길 경

徑자는 '지름길'이나 '질러가는 길',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徑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𠂔(물줄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벼를 사이로 낱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지나다'라는 뜻이 있다. 徑자는 이렇게 '지나다'라는 뜻을 가진 𠂔자에 彳자를 결합한 것으로 '지름길'이나 '가로지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徑자는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건너다'나 '곧바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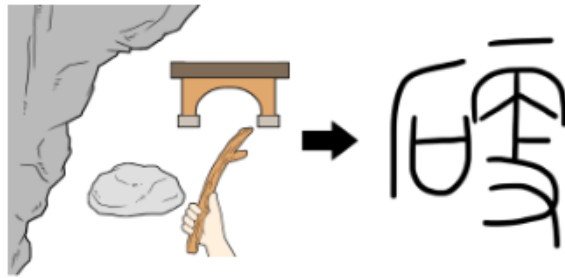
소전

徑

해서

3(2)
-
25

형성문자①



硬

굳을 경

硬자는 '굳다'나 '단단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硬자는 石(돌 석)자와 更(고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更자는 '고치다'나 '개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硬자는 돌의 단단함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강하다'나 '힘이 세다'와 같이 단단한 돌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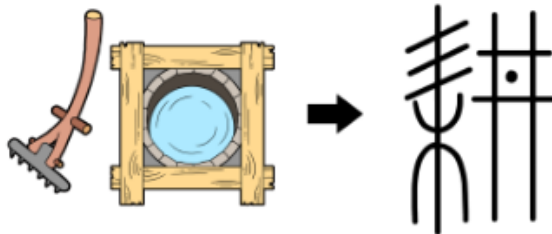
소전

硬

해서

3(2)
-
26

회의문자①



耕

밭갈[犁田] 경

耕자는 '밭을 갈다'나 '농사 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耕자는 耒(가래 퇴)자와 井(우물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井자는 우물을 그린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 井자를 응용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耕자에 쓰인 井자는 밭을 일렬로 고르게 갈아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耕자의 고자(古字)인 耨(밭갈 경)자에 井자가 쓰인 것도 고르게 갈린 논밭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耕자는 이렇게 쟁기로 밭을 고르게 갈아놓은 모습으로 그려져 '밭을 갈다'나 '농사 짓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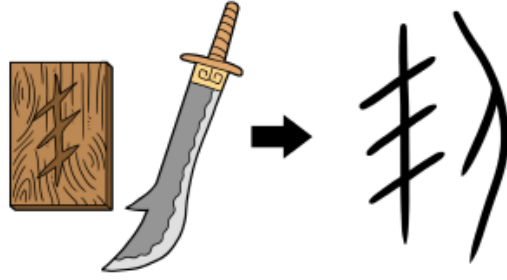
소전

耕

해서

3(2)
-
27

회의문자 ①



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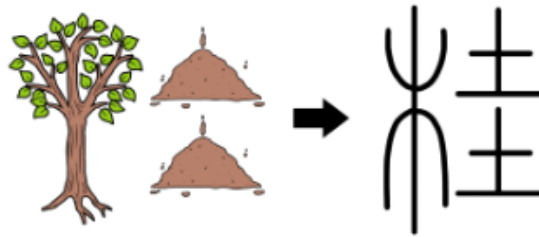
맺을 계:

契자는 '맺다'나 '언약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契자는 大(큰 대)자와 𠂔(새길 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칼(刀)로 목판에 무늬(丰)를 새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목판에 무늬를 새기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굳은 결의를 연상케 했다. 그래서 𠂔자는 후에 굳은 약속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사람 간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 大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8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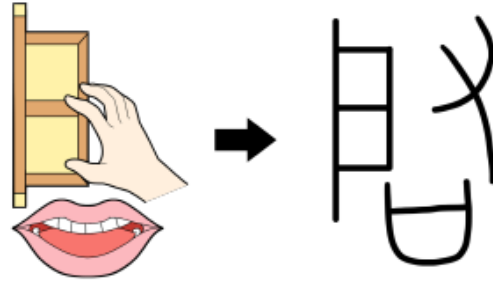
桂

계수나무
계:

桂자는 '계수나무'나 '월계수'를 뜻하는 글자이다.桂자는 木(나무 목)자와 圭(홀 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圭자는 신하를 책봉할 때 하사하던 옥규(玉圭)를 그린 것으로 '상서로운 구슬'이라는 뜻이 있다. 계수나무는 먼 옛날부터 수많은 민속신앙을 만들어 냈던 나무이다. 특히 고대 중국의 설화에는 달 속에 계수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찧는다는 내용이 있다. 달을 대상으로 한 시나 노래에는 계수나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기에 계수나무는 좋은 나무, 성스러운 나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계수나무를 뜻하는 桂자에 '상서로움'을 뜻하는 圭자가 쓰인 것도 이 나무가 상서로움을 지닌 나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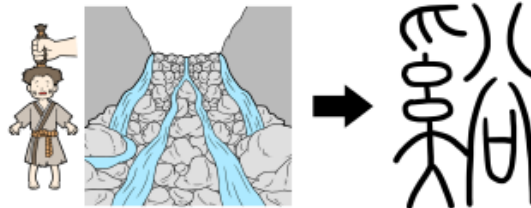
啓

열 계:

啓자는 '열다'나 '일깨워주다', '여쭙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啓자는 启(열 개)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戶(지게 호)자와 又(또 우)자, 口(입 구)자가 啓 결합한 형태였다. 戶자는 외닫이 문을 뜻하고 又자는 손을 그린 것이니 이것은 문을 열어 젖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口자까지 더해진 것은 문을 열어 누군가를 깨운다는 뜻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의 啓자는 '열다'나 '일깨워주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又자가 攴자로 바뀌게 되면서 마치 몽둥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 ①



溪

시내 계

溪자는 '시냇물'이나 '산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溪자는 水(물 수)자와 奚(어찌 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奚자는 머리채를 잡힌 여자 노비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해→계'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谷(골짜기 곡)자가 들어간 谿(시내 계)자가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溪자가 '시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소전	해서